

# 빈부격차와 환경파괴로 몸살 앓는 지구촌

## 유엔개발계획(UNDP) 1998 인간개발보고서

유엔개발계획(UNDP)은 9월 9일 발표한 「1998년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올해 전세계 소비는 24조달러를 넘어섰으나 부국과 빈국간 소비격차는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5년 동안 선진국들에서 1인당 소비는 연평균 2.3%씩 늘었고, 특히 동아시아의 경우 6.1%라는 놀라운 소비 증대가 이루어졌지만, 아프리카의 경우 0.8%씩 감소되어 현재의 소비는 지난 25년 전보다 20%나 감소되었다.(표1) 현재 70개 나라의 10억 명의 인구가 25년 전보다 더 적은 소비를 하고 있다.

[표1] 1963-1998 1인당 지역별 연간 소비증가율

지역	선진국	동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1인당 소비증가율	+2.3%	+6.1%	+2.0%	-0.8%

또한 고소득국가에 사는 세계인구의 20%에 불과한 사람들이 세계 상품과 소비의 86%를 쓴 반면 20%의 가난한 나

[표2] 세계 수준에서의 소득격차에 따른 소비격차 정도

	고기와 어류	에너지	전화선	종이	운송수단
상위 20% 소비율	45%	58%	74%	84%	87%
하위 20% 소비율	5%	4%	1.5%	1.1%	1%

라의 국민들은 1.3%를 소비하는데 그쳤고, 세계인구의 상위 20%가 고기와 어류의 45%, 에너지의 58%, 전화선의 74%, 종이의 84%, 운송수단의 87%를 소비한 반면, 하위 20%의 소비는 극도로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다. (표2)

보고서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빈곤지수도 파악했는데, 이에 따르면 선진국 국민의 7~17%가 빈곤상태에 있으며, 미국은 엄청난 부와 높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16.5%가 빈곤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도 국민의 15%가 빈곤상태에 처해 있다. 부유한 나라 국민 중에서도 1억명 이상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고, 대략 2억명 가까운 사람들이 60살까지 못살 것으로 예상되며, 그리고 3천 7백만 명이 실업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고서는 선진국 가운데 ‘인간빈곤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로 스웨덴(7%)을 꼽았다.

특히 가속화하는 환경파괴는 빈국 국민에게 집중적으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1950년 이래 석탄 석유 가스 따위의 화석연료 소비는 5배, 물 소비는 거의 2배, 어획량은 4배 늘었으며, 목재 소비는 25년 전에 비해 40% 이상 늘어났다. 매년 270만명이 공기오염으로 사망하며, 희생자의 80%는 개발도상국의 빈민들이다. 보고서는 환경파괴의 피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불결한 공장 지대, 대로변, 쓰레기장 주변 등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오는 2050년에 지구 인구가 95억명에 이를 것이고 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연간 100억톤의 곡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도한 목축, 벌채, 경작으로 인한) 자연환경이 더욱 빠르게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세계화가 전세계의 소비자 시장을 통합시키고 있지만, 반면에 새로운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음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는 경제적으로 세계 도처에서 격렬한 경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소비에 대한 지역과 국가 차원의 기준을 무너뜨리면서 “세계적인 브랜드”를 선호하는 “세계 엘리트”와 “세계 중산층”을 만들어 내면서 소비시장을 넓혀간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적게 잡아도 4350억달러가 광고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광고비가 최근 10년 사이에 거의 3배로 늘어났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세계적 차원의 불균등 소비

와 환경파괴를 바로잡고 보다 공평한 세상, 더 큰 인간진보를 이루어내는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해 다음 7가지 행동 과제를 제시했다.

① 모든 나라의 분명한 정책 목표로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비를 보장하라.

②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술과 방법을 개발하고 활용하라.

③ 잘못된 보조금을 철폐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소비를 억제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소비로 장려하는 쪽으로 세금제도를 개선하라.

④ 소비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와 환경 보호를 위한 대중활동을 강화하라.

⑤ 소비의 세계적 영향을 관리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강화하라.

⑥ 소비자 권리, 환경보호, 빈곤철폐, 남녀평등, 어린이 권리 보호를 위한 운동들의 연대를 강화하라.

⑦ 모든 지역 사회에서 민중들의 주도권을 꽃피우고 시민사회, 정부, 민간부문의 협동을 증진하라.

보고서는 인간개발지수도 발표했는데, 인간개발지수 1위는 캐나다, 2위는 프랑스, 3위는 노르웨이였으며, 한국은 30위였고 북한은 75위였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undp.org/undp/hdro/98.htm>을 참조) ❖